

대종교가 한국사에 끼친 공헌



오 영 섭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을사늑약 이후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단군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단군을 민족시조와 건국시조로 내세우는 대종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 점에서 대종교는 을사늑약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산물인 셈이다.

대종교는 1909년 1월 15일(음) 나철이 창시한 민족종교이다. 나철은 을사오적 처단활동을 벌였고 자신회라는 계몽단체를 조직한 애국지사였다. 그는 한민족은 모두 단군의 후손이므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또 대한제국 황제와 민족시조 단군 가운데 단군이 황제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보았다. 이로써 그는 단군 혈연의식과 민족주의사상을 융합시킨 대종교적 민족사상을 창립하였다. 이러한 사상논리의 밑바닥에는 환인-환웅-단군을 일체로 보는 삼신일체(三神一體)의 단군관이 깔려 있었다.



나철의 대종교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1909년 10월 3일(음)에 단군 탄생과 한국 최초의 국가 건설을 축하하는 개천절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다. 둘째, 국민통합의 상징적 수단으로서 단기(檀紀) 연호의 사용과 정착화에 노력하였다. 셋째, 만주에 기원을 두었던 여러 민족을 모두 한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관념을 만들었다. 넷째,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한 모든 민족을 배달겨레로 파악하려는 대단군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대종교는 단기 연호, 개천절, 반만년의 역사의식, 백두산 신성관념, 단군숭배의식 등을 민족통합을 위한 근대적 정치사상으로 제시하였다.

경술국치 전후에 독립운동가들은 대종교의 단군사상을 일종의 종교처럼 받아들였다. 이는 경술국치가 가져온 국가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을 사상적으로 이겨내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대종교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민족정체성의 원형인 단군신앙을 강조하고 포교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개창 이후 대종교는 국내외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개창된 지 1년 반 만에 수만 명의 신도를 얻자, 일제는 대종교에 대해 탄압을 가하였다. 대종교는 1914년 5월에 백두산 북쪽 산 밑의 청파호 근방으로 교단 본부를 옮기고 만주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30만 신도를 확보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제는 대종교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분함을 참지 못한 나철이 1916년 구월산 삼성사에서 자결하였다. 이처럼 교주가 자결한 것은 한국근대 종교사에서 초유의 사건이었다.

1910년대 이후 대종교도들은 독립운동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첫째, 임시정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신규식은 독실한 대종교도였다. 그는 상해에서 여러 단체와 학교에 관여하며 대종교를 전파하였다. 그 결과 많은 애국청년들이 대종교의 단군신앙과 개천절 의식을 받아들였다. 당시 개천절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모여 항일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임시정부가 환국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신규식 외에도 박은식, 박찬익, 조성환 등 저명한 인사들이 대종교 신도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

둘째, 대종교도들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19년 2월에 작성된 대한독립선언서는 대종교 이념이 반영된 것인데, 이때 39인의 선언자 중에는 대종교 신도들이 다수였다. 또 대종교는 중광단을 조직하여 북로군정서로 발전시킴으로써 무장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다. 1920년 10월 화룡현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는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전과이다. 이때 대종교 교주 서일은 청산리전투에 참여한 군단들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대종교 신자인 김좌진, 나중소, 이범석 등이 군단을 거느리고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치러 큰 공을 세웠다.

셋째, 대종교도들은 고유한 민족주체성의 보존을 중시했다. 대종교 제2대 교주 김교헌은 『신단민사』와 『신단실기』를 저술하여 대종교와 한국사를 정리하였다. 이 책들은 중국 각지에 있는 한국 아동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그들은 1910년대 한국학운동의 본산인 조선광문회에서 최초의 한글사전 편찬사업, 고전 복간 사업, 대중용 소설 발간 사업 등을 벌였다. 이로써 일제시기의

한국학운동에 토대를 닦았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조선어학회에도 깊이 간여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사전의 편찬과 한글맞춤법의 제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넷째, 대종교도들은 한국근대의 여러 종교 가운데 일제로부터 가장 혹심한 탄압을 받았다. 당시 일제는 단군신앙의 강조가 독립의지의 고취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1926년 일제의 압력을 받은 만주 길림성장은 대종교포고금지령을 내렸다. 이로써 대종교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4개의 본사를 폐쇄하였다. 또한 일제는 1942년 11월에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종교 지도자 20명을 검거했다. 이중 10명이 가혹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이 한국민의 항일의지를 집결시킨 촉매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교단의 지도부가 몰살당하는 참극은 한국근대 종교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